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트럼프의 무역전쟁, 계속해서 美 경제 압박하고 있다
- ◇ (칼럼)-한국 국채 WGBI 편입과 달러/원 환율
- ◇ (시장진단)- 이벤트성 수급이 박스권 하단 막아..엇갈리는 달러/원 전망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로이터/마이크 A 맥코이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17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59.4	0.2%	-0.3%	-3.5%	유로	1.1088	-0.3%	-1.1%	-2.3%
100엔 대비	1,053.3	0.4%	0.9%	-4.4%	엔	110.14	-0.6%	-1.4%	0.9%
유로 대비	1,286.7	0.1%	0.5%	-1.3%	위안	6.8800	0.8%	1.2%	-1.3%
위안 대비	169.15	-1.1%	-2.0%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9,348.10	1.8%	2.8%	22.3%
코스피	2,250.57	2.0%	2.4%	7.7%	나스닥	9,388.94	2.3%	4.6%	35.2%
코스닥	688.41	2.3%	2.8%	-0.9%	S&P500	3,329.62	2.0%	3.1%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72.70	1.5%	3.6%	15.8%
국고채 3Y	1.433%	0.8bp	7.3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553%	0.7bp	7.3bp	-40.4bp	미국채 2Y	1.565%	-0.5bp	0.4bp	-93.7bp
국고채 10Y	1.741%	3.5bp	5.8bp	-26.5bp	미국채 10Y	1.825%	0.5bp	-8.5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58.54	-0.8%	-4.1%	34.5%	한국 5Y	19.9bp	-1.5bp	-1.1bp	-17.0bp
금(현물)	1,556.20	-0.4%	2.6%	18.3%	일본 5Y	18.1bp	-1.0bp	0.4bp	-4.0bp
TR상품지수	2,518.98	0.0%	1.3%	4.8%	중국 5Y	29.0bp	-2.1bp	-1.7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 월 20 일(월)>

-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2:00)

<21 일(화)>

- 한은, 2019 년 12 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관세청, 1 월 20 일까지 수출입동향
- 한은, 2019 년 12 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12:00)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2019 년 4/4 분기 동향 및 2020 년 1/4 분기 전망)(12:00)

<22 일(수)>

- 한은, 2019 년 4/4 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08:00)
- 기재부,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23 일(목)>

- 특이일정 없음

<24 일(금)>

- 공휴일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 월 20 일(월)>

- 중국, 1 월 대출우대금리(LPR) 1 년물 · 5 년물 (10:30)
- 일본, 11 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21 일)
- 미국 휴장

<21 일(화)>

-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22 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2 월 전미활동지수 (22:30)
- 미국, 11 월 주택가격 (23:00)
- 미국, 12 월 기존주택판매 (자정)
- 캐나다중앙은행(BOC) 기준금리 발표(자정)

<23 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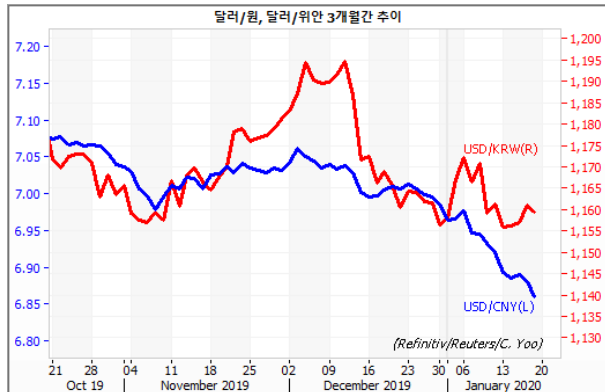
- 일본, 12 월 수출입 (8:50)
- 일본, 11 월 경기 선행지수 수정치 (14:00)
- 노르웨이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18:00)
-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발표(21:45)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2 월 경기 선행지수 (자정)
- 유로존, 1 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자정)

<24 일(금)>

- 미국, 1 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 (1:00)
- 일본, 12 월 소비자물가지수(CPI) (8:30)
- 일본은행(BOJ) 2019 년 12 월 18-19 일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8:50)
- 일본, 1 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9:30)
- 유로존, 1 월 마르키트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미국, 1 월 마르키트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 (23:45)
- 중국 휴장(~30 일)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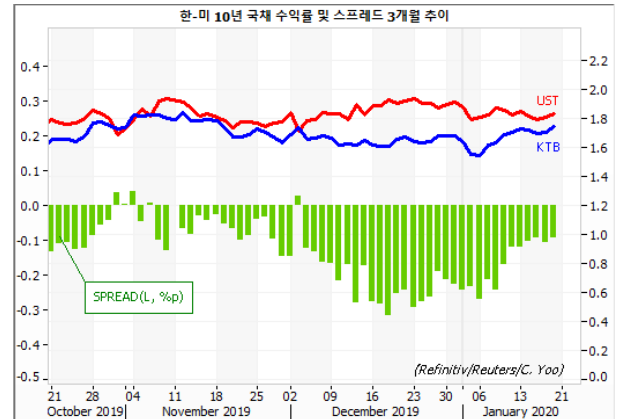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지난주 미-중 1 단계 무역 합의라는 대형 호재에도 새로운 추세를 이끌지 못한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지금까지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50-1165 원이다.
- 21 일 발표될 이달 20 일자 한국 수출입 실적에 대한 관심은 높다. 10 일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 다만 수출 회복 조짐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수급 동반 없이 환율이 박스권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 대응이 변수지만 과거처럼 네고 물량 처리가 시기적인 특수성을 보이지 않는 만큼 달러 공급이 확연한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 따라서 그간 노출된 시장 모멘텀이 박스권을 넘어설 만큼 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환율은 박스권에 머물며 수급에 따라 소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주요 국내외 지표 및 일정으로는 21 일 BOJ 통화정책 회의, 22 일 한국의 2019 년 4 분기 GDP 속보치, 23 일 ECB 통화정책 회의 등이 있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뚜렷한 재료 없이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 1 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는 만장일치 금리 동결 루머가 돌기 전 시장 전망에 거의 부합했다. 11 월보다 금리인하 소수의견 주장이 한 명 늘었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
- 오히려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도 완화적'이라는 수사를 다시 꺼내 들어 당분간 금리동결 입장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 적어도 4 월 이전에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최대 동인은 수급이 될 수밖에 없다. 주초 국고채 10 년물 입찰 결과를 확인하며 시장이 추가 조정 폭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20 일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한국의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전망에 글로벌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한국은행은 21 일 지난해 12 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표한다. 5 개월째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은은 22 일 '2019 년 4 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한다. 정부와 한은이 제시한 '성장을 2.0% 달성'이 관건이다.

(분석)-트럼프의 무역전쟁, 계속해서 美 경제 압박하고 있다

(※ 이 글은 미-중 무역 합의 서명 이전 작성된 것입니다.)

워싱턴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 비용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한 여러 이코노미스트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산 산업 부품과 재료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고용을 특히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관세는 대체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로 18 개월간 지속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은 완화됐다. 무역 전쟁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3700 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은 1000 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무역 전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세계 경제 생산이었다. 세계은행은 지난주 무역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며 2020, 2021 년 세계 성장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을 수 있다는 초기의 예상은 미국 경제의 소비자 주도적 특성 등으로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7 년 감세와 2019 년 연준의 세 차례 금리 인하 역시 경기 활성화를 도왔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공산품, 부품, 반도체, 기계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장난감 등 소비재에 대한 주요 관세가 지난달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1 단계 무역합의로 무기한 연기됐다.

무역전쟁은 지난해 미국 제조업 활동 둔화의 주요 요인이었다. 연준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11 개월 중 7 개월 동안 감소했

으며 2019 년 2 분기에는 연율 3.3% 감소해 경기 침체 시기였던 2009 년 2 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알루미늄, 전기 조명, 가구, 반도체, 제강 공장 등은 관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을 부품과 최종 제품으로 가공하는 회사들은 더 높아진 투입비용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채택한 트럼프가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미국 기업들은 460 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냈다.

메리 러블리 시러큐스대학교 무역 이코노미스트는 1 단계 무역합의 이후에도 남아있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의 경제 발전에 큰 문제라고 밝혔다.

러블리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움직임에 대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제품들에 세금을 매기면서도 그는 관세가 제조업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라며 "그러나 관세가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는 불명확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 실업 증가

2019 년 12 월 23 일 발표된 새로운 연준 보고서는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포함해 2018, 2019 년 새롭게 부과된 모든 관세의 영향을 망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관세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용보다 실업이 더 많았다.

연준 연구원 애런 플라센과 저스틴 피어스는 "제조업 고용의 경우 수입 보호로 인한 약간의 증가세는 투입 비용과 보복 관세 영향으로 인한 악영향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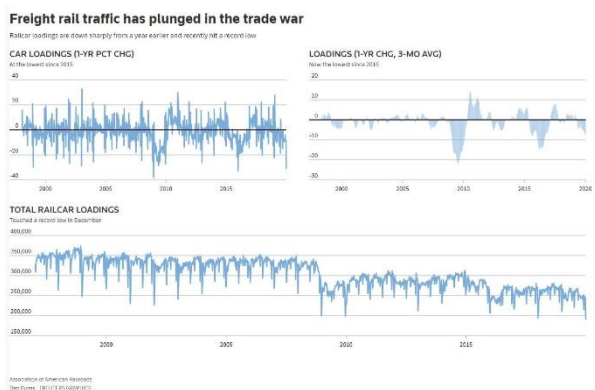
자전거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월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자전거를 수입하는 업체인 켄트 인터내셔널의 아놀드 캄러 최고경영자(CEO)는 약 50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집에서 만드는 자전거 계획을 보류했다.

캄러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철강과 기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기업에 수백만 달러

의 손실을 입혔으며 이 관세는 1 단계 합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철도 교통, 수출 감소

2019년 말 제조업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철도 화물 운송은 급격히 줄었다. 미국철도협회에 따르면 전체 화물 적재량은 최근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12월 30일과 1월 6일 시작하는 주의 수치는 작년 수준에서 30% 이상 감소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덜한 3개월 평균 역시 거의 10% 감소했다. 철도 화물 감소세는 2015-2016 세일유 파동 기간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이었다.

부진한 제조업은 미국 상품 수출이 부분적으로 보복 관세로 인해 2018년보다 1%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 연준, 미국 인구조사국, 미시간대학교의 연구원들이 발표한 또 다른 연구는 관세를 납부하는 제조업체들이 수출에서 더 큰 감소세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다.

공급망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크게 노출된 기업체들의 수출은 영향이 없었던 업체들에 비해 약 2% 감소했다.

연구는 또한 거의 3분의 1의 기업들이 구입한 제품 중 약 46.5%에 관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기업들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업들은 미국의 총 비농업 고용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코웬앤코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옮기려 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는 복잡하고, 비싸며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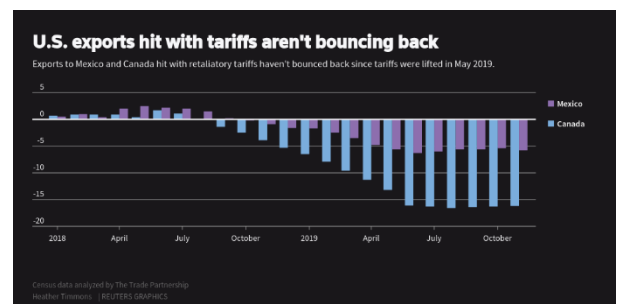
◆ 느린 반향

1 단계 무역합의로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장난감을 포함해 총 1560억 달러어치의 중국 소비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던 트럼프의 계획은 중단됐다. 또한 합의를 통해 블루투스 헤드폰과 평면 패널 텔레비전, 신발에 이르기까지 12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절반인 7.5%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가구, 조명제품 등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기계류 및 산업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중국 관세가 2 단계 합의를 통해 앞으로 수개월 내에 없어진다고 해도 미국의 수출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대니얼 앤소니 트레이드파트너십 부회장은 지난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취소됐지만 관세 취소 이후에도 이들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 뒤 버번 위스키, 케첩, 사과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앤서니 부회장은 미국 상품의 기존 구매자들은 국내나 해외에서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았을 수도, 제

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을수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어졌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은 과연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결과였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칼럼)-한국 국채 WGBI 편입과 달러/원 환율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기획재정부가 한국 국채의 글로벌채권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WGBI) 편입 추진을 중장기적인 검토 과제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영향을 분석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WGBI가 다시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10년 전 일이 소환됐다.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여부가 채권 시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2010년 5월 초였다. 국채의 WGBI 편입을 강하게 추진했던 허경욱 당시 기재부 1차관과의 인터뷰 자리에서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기 전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은 무조건 되는 것"이라며 "상반기 편입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두고 보면 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 발언이 기사화된 후 기재부 내 국제금융 라인 당국자들이 보인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었다. 일부 당국자들은 '이미 떠난 분의 이야기'라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당시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은 무산됐다. 하지만 한국 국채가 WGBI 편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고 보는 이는 드물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재부 내부의 분위기가 한국 국채의 WGBI 가입에 부정적으로 바뀐 부분을 빼놓고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달러/원 환율이 기재부의 변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WGBI 편입 추진과 기재부의 변심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9년 2월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외화자금시장에 '3월 위기설' 등 달러 유동성 우려가 부각되자 기재부가 꺼내든 카드가 WGBI 편입이었다.

기재부는 한국 국채가 이미 WGBI 편입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며 '가입은 시간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꼭 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외화자금 시장은 안정적으로 2009년 3월을 넘겼고, 연말로 갈수록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논의는 기재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지지부진했다. 2009년 당시 WGBI를 주관하고 있던 씨티위원회가 7월부터 한국 국채 편입을 논의했는데도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0년 1월과 3월, 6월에도 한국 국채 편입 문제가 씨티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랐지만, 국채통합계좌의 활용도 문제, 정부의 선물환 규제 등을 이유로 승인은 유보됐다.

이 과정에서 WGBI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허경욱 차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옮겨갔고 기재부 내부의 추진 동력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2010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재부의 초점은 외자 유치에서 과도한 자금 유입 억제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같은 기재부의 태도 변화는 달러/원 환율의 급락과 궤를 같이한다.

2009년 3월 1570원까지 올랐던 달러/원 환율은 2010년 4월 말 1100원대 초반까지 급락한다. 같은 해 5월 말 1250원대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연말에는 다시 1130원대로 내려앉는다. 2011년 3월에 1100원대를 갠 달러/원 환율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부각되기 직전인 7월까지 900원대를 바라보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가파른 환율 하락이 이슈로 떠오르던 시점인 2010년 말 기재부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제

'를 부활시키는데, 이는 사실상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포기를 의미했다.

기재부는 한국 국채를 WGBI에 편입시키겠다고 2009년 3월에 외국인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되돌린 것이다.

당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같은 기재부의 변심이 결국 환율 때문이었다 해도 이의를 달기 어렵다.

▲ 기재부, 여전히 '환율' 한 우물..WGBI 편입 추진 일관성 유지 어려움

10여년이 지난 지금 기재부의 입장은 달라졌을까?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은 실(失)보다 득(得)이 크다는 판단을 기재부가 하고 있는 걸까? 기재부의 입장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될 경우 대규모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과 함께 국내 자산시장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는 게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일 것이다.

하지만 환율 변동성에 대한 기재부 국제금융 라인 의 거부감을 감안할 때 WGBI 편입 추진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구심이 남는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이 강하게 유지된다면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메리트는 계속 커 보일 것이다. 기재부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 수 있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금 유입과 관련한 기재부의 스탠스는 환율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는 기재부가 공기업의 외화채 발행 원도를 조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재부는 원화 강세 기조가 뚜렷했던 지난 2007년에는 공기업들의 해외채권 발행을 억제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말부터 다시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을 독려했다.

기재부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의지를 접었던 2010년에는 공기업들의 해외채권 발행 역시 엄격

한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에 다시 풀어주지만, 환율이 과도하게 하락할 때마다 공기업 해외채권 발행의 고삐를 바짝 죄기 때문이다.

물론 WGBI 편입 추진은 기재부의 중장기 과제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환율 때문에 기재부가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대해 보여준 '갈대' 스탠스를 감안할 때, WGBI 편입 논의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장진단)-무역합의 넘자 이벤트성 수급이 박스권 하단 막아..엇갈리는 달러/원 전망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벤트가 합의문 서명으로 일단락되며 외환시장의 중요한 모멘텀 하나가 소멸한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수급에 대한 민감도를 한층 키우는 모양새다.

연초 예상치 못했던 중동 정세 불안에 단기 박스권 상단인 1180원 근처까지 급하게 올랐던 환율은 이 리스크가 완화되자 1150원으로 미끄러져 박스권 하단을 위협했다.

물론 지난 몇개월 동안 형성된 달러/원의 박스권 장세는 새해 들어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미-중 갈등 완화 국면에 따른 위안화 안정,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여건, 그리고 국내외 경기 개선 기대 등을 반영하며 달러/원 하락 시도도 호시탐탐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역대 수급이 이같은 흐름과 엇박자를 내며 환율은 박스권 하단에서 쉽지만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이벤트성 수급 변수 걸히면..엇갈리는 심리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14일 달러/원 환율은 7개월째 이어진 박스권 하단인 1150원을 거세게 위협했다. 하지만 환율은 국민연금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달러 매수에 막혀 결국 반등 마감했다.

그 여파가 걸히기도 전에 환율은 16일 또 다른 수급 변수에 맞닥뜨렸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최근 포스코 해외 채권 발행과 관련해 원금 교환 없는 **CRS** 거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포스코가 해외 채권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 원금 교환 없는 **CRS** 거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물량은 이날 처리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장중 환율은 **1160** 원을 중심으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출렁이고 있다.

결국 연초 수급 여건에 따라 환율이 출렁이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달러/원에 대한 단기 전망은 더욱 더 엇갈리는 분위기다.

A 은행의 외환딜러는 "이벤트성 수급 때문에 장중 환율은 비디시하겠지만 이같은 물량이 처리된 이후에는 환율이 무거운 흐름을 보이다가 단기간 내 박스권 하단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력한 지지선인 **1150** 원 선 하향 이탈이 생각만큼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B 은행 외환딜러는 "기술적으로 **1150** 원은 워낙 강력한 지지선인 데다 이 레벨이 깨지면 환율이 완전히 다른 레벨로 진입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1150** 원 중심의 지지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 외환딜러는 "결제수요들이 일단 처리가 되고 그러면서 시장 내 손바뀜이 일어나야 환율의 추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면서 일단 기존 박스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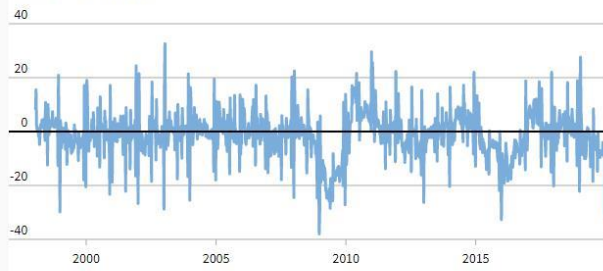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Freight rail traffic has plunged in the trade war

Railcar loadings are down sharply from a year earlier and recently hit a record 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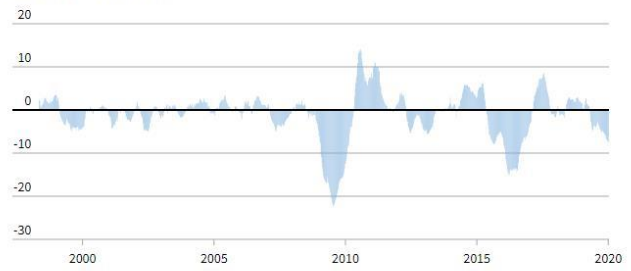
CAR LOADINGS (1-YR PCT CHG)

At the lowest since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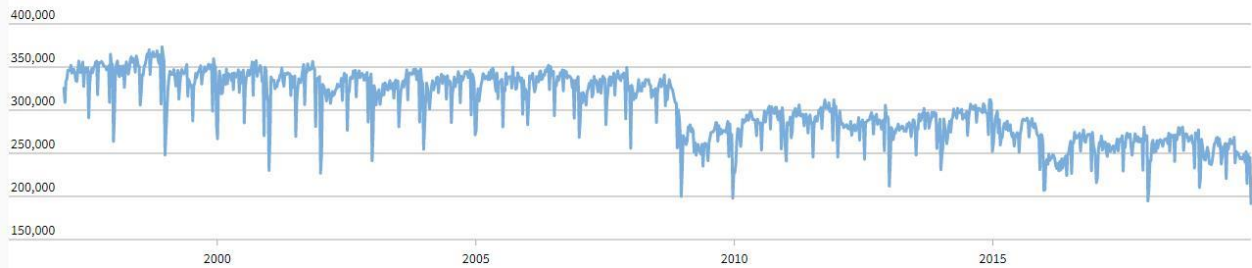
LOADINGS (1-YR CHG, 3-MO AVG)

Now the lowest since 2016



TOTAL RAILCAR LOADINGS

Touched a record low in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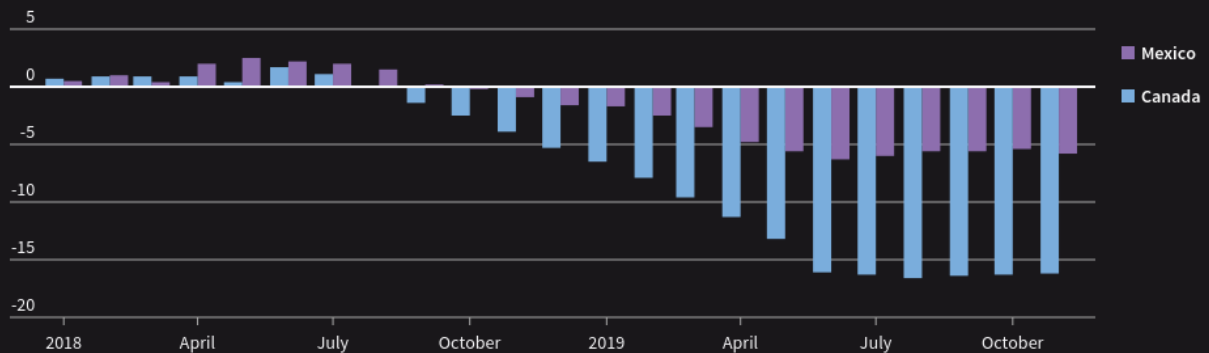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Dan Burns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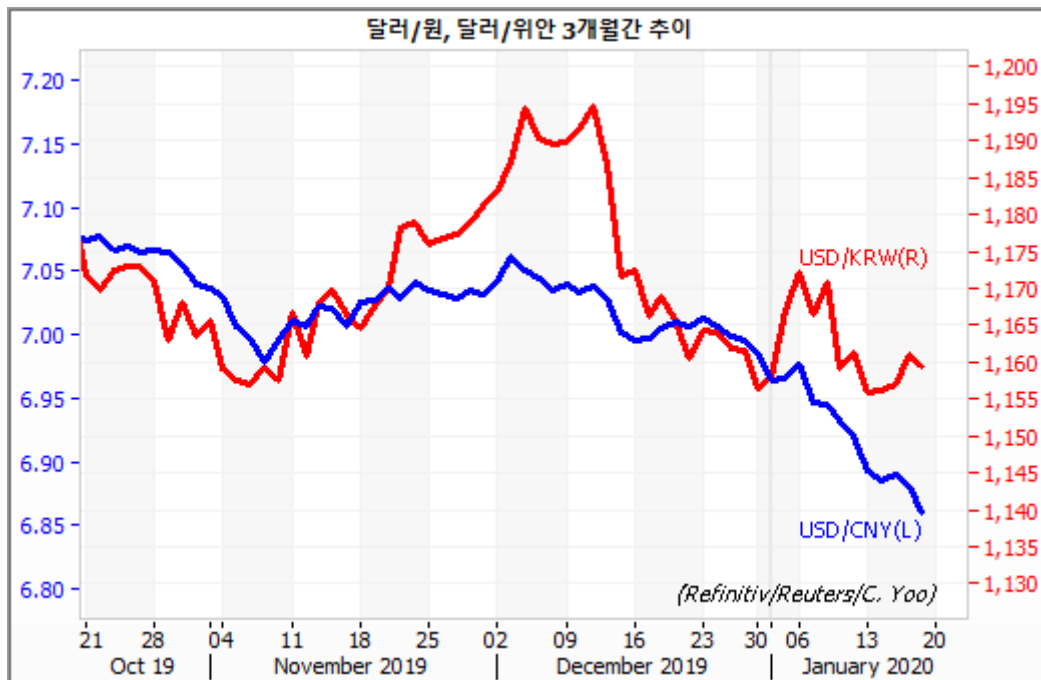
U.S. exports hit with tariffs aren't bouncing back

Exports to Mexico and Canada hit with retaliatory tariffs haven't bounced back since tariffs were lifted in Ma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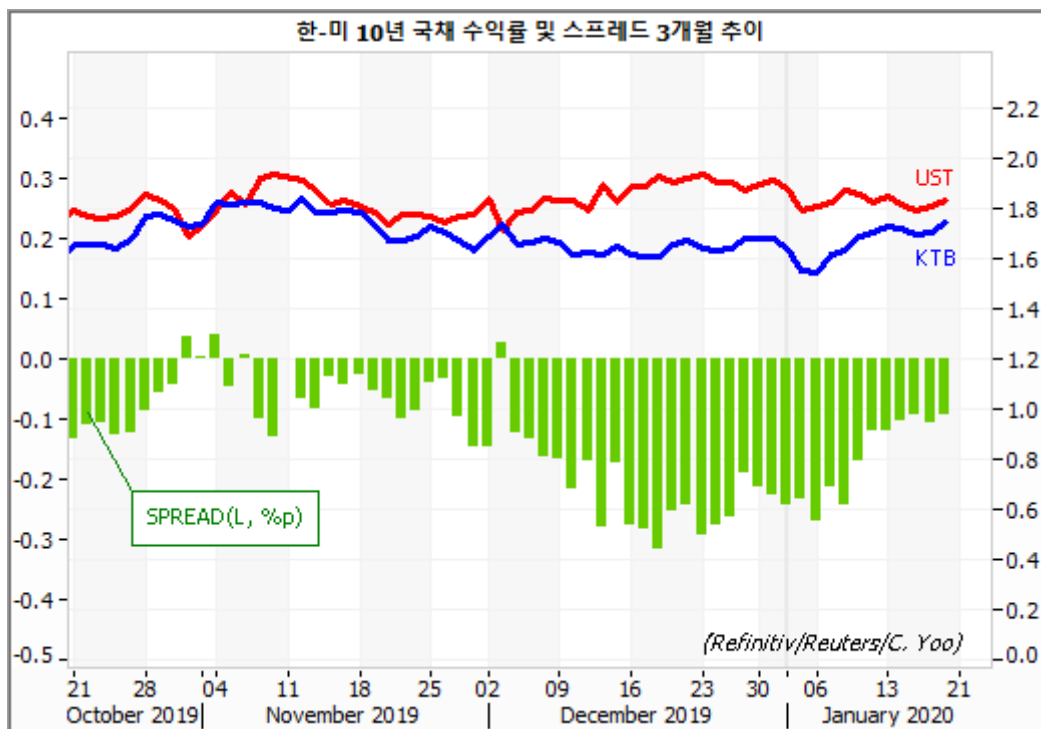


Census data analyzed by The Trade Partnership
Heather Timmons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